



김윤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제3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개혁

제3의 길 등장의 이면에는 미국과 영국 사회의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자계급의 양적 감소로 인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1. 서론

현재 '제3의 길'은 영국노동당의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1998년 9월 클린턴 대통령과 이태리의 프로디 수상이 참여한 뉴욕대학 세미나에서 블레어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중도좌파를 위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서 '제3의 길'을 제안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이라는 저서가 출판되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기든스의 책이 신속하게 번역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3의 길'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3의 길'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확인도 없이 부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뉘어져 무조건 찬양 또는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역사상 '제3의 길'은 최근에 처음 쓰여

지는 용어는 아니다.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은 20세기초에 처음 고안되었고, 1920년대에는 유럽의 우익들이 사용하곤 하였다. 전후 시기에는 사회민주주의들이 미국의 시장자본주의와 소비에트 공산주의와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인용했다. 그리하여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동유럽에서 시장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제3의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자신들의 강령개정의 변화를 제3의 길이라고 표현하였다. 최근의 클린턴과 블레어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초월한 새로운 정치철을 주장한다.

제3의 길 등장의 이면에는 미국과 영국 사회의 전통적인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자계급의 양적 감소로 인한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 50%를 웃돌던 노조 조직률이 대처 보수당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1995년에 이르러 28.8%까지 하락하였다.

국은 이미 전체노동자 비율 중 제조업 노동자 비율이 15%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영국도 30% 내외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 50%를 웃돌던 노조 조직률이 대처 보수당정부의 노동운동 억압으로 1995년에 이르러 28.8%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원의 감소와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의 약화는 영국노동당으로 하여금 노조중심의 정치에서 점차 선거의 승리를 위해 중간계급과 연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였다.

1994년 블레이크를 당수로 선출한 이후 노동당은 당헌 제4조의 폐지를 통해서 전통적인 국유화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였다. 다음으로 노동당 조직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블록투표(block vote: 노동조합이 자동적으로 갖는 투표권)를 제한하고, 일당원 일부투표제(One-Man-One-Vote)를 실시함으로써 노동당의 현대화

를 추진하고,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 또는 국민정당으로 전환하였다. 노동당은 선거에서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수당이 제시한 복지감축, 소득세 감면, 민영화 계획을 수용하였다. 동시에 노동당은 교육과 의료부문의 국가복지와 일부 국영기업을 유지하며 공영-민영부문의 동반자관계를 주장하면서 기존의 보수당과는 상이한 사회,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 노동당의 개혁은 기존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는 매우 다르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노선과도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제3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 노동당의 새로운 노선은 과연 어떻게 등장하였고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자 한다.

## 2. 영국 노동당의 개혁

1994년 7월 21일 41세의 젊은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인 토니 블레어는 당수에 취임하자 곧 일련의 중요한 변화를 주도했다. 먼저 블레어는 공개적으로 대처 정부를 부분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측면에서 대처정부가 산업과 상업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한 전통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 개조하고 적응하는데 성공한 보수당의 성공을 인정하고 있었다. 먼저 블레어는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당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내부적 변화를 필요로 했다. 그는 모든 노동당원중에 수록되어 있는 전 산업의 국유화를 요청하는 노동당 당헌 제4조의 삭제를 시도했다. 당헌 제4조 때문에 노동당은 소비에트 공산주의같이 관료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보였다. 국유화는 1980년대 보수당의 민영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은 후에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결국 441개의 지구당의 비밀투표에서 약 85퍼센트의 노동당 당원이 블레어의 당헌 제4조 개정안을 지지했던 반면, 단지 3명이 당헌 제4조의 고수를 지지했다.

블레어가 당수가 된 이후 백화점식 강정책은 즉각 축소된 반면, 경쟁이나 생산성과 같은 보수당의 정책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복지영역에서 블레어는 이전의 노동당 정책에서 선회하여 거대한 사회안전법령은 실패의 신호이지 성공의 신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시스템은 '의존' 대신 '성공'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레어는 신속하게 보수당의 언어를 사용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로운 당헌 제4조는 활력 있는 경제와 '시장과 경쟁의 기업'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이다. 사회주의는 이제 노동당 정책에서 점차 불필요한 수식어가 되었다.

노동당의 정책 변경과 함께 블레어는 새로운 대중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블레어는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당헌 제4조의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별이면서 3만 명 이상을 직접 만났다. 그는 전국적인 연설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원들에게도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20세기 초반의 노동당의 사회주의 연설은 매우 단순하였으나 이후 점차로 학문적이고 난해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완전히 외국어처럼 들리는 어려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다. 종종 노동당원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역사가 A.J. 데이비스는 노동당 국회의원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나는 당원들에게 좋은 정책은 반드시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다르게 말하곤 했다. 문제는 누가 바보가 되었는가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는 동안 노동당의 당원, 특히 청년층의 당원은 일부 노동당 정치인들의 태도에 실망하면서 좀 더 친밀하고 유연한 단일한 이슈의 캠페인이나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등 신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급속하게 감소했다. 그러나 블레어가 당수로 선출된 이후 노동당의 당원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30만 명을 초과하였다. 노동당 당원의 급속한 성장은 자동적으로 노동당 선거제내부의 변화를 촉발했다.

### 3. 노동당과 노동조합

블레어는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당의 전통적인 친노조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 1995년 노동당의 전당대회에서 노동당과 노조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모든 노동당원이 '만약 적격이라면(if eligible)' 노조에 참여하도록 요구했던데 비해, 이제는 '적용할 수 있다면(if applicable)'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블레어의 '위로부터의 현대화'는 노동당의 조직 전체에 확대되었다. 노동당은 오랫동안 단일한 이익집단처럼 보였다.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인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TUC)는 노동당의 재정 중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동조합회의는 노동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3분의 1 정도의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노동당은 국민적 정당이라기 보다 특정계급의 분파적 조직으로 보였다. 1970년대 노동조합의 블록투표는 연례 전당대회에서 90퍼센트에 달했으며, 3대 산별노조 중 어느 한 개도 전체 지구당보다 더 컸다. 그러나 블레어의 당조직 개혁 이래 노조의 블록투표는 70퍼센트 정도로 감소되었고, 당원 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5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수 있다.

블레어는 노동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처 정부가 개정한 노동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1980년이래 1995년까지 일곱 번에 걸쳐 고용법(Employment Act)을 개정하여 노조를 약화시키고 단체협상을 제

약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조인정 조건의 강화, 노조의 파업에 대한 비밀투표 실시,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자의 정의 금지, 연대파업 금지, 노조탈퇴자에 대한 고용주의 재정지원 허가, 파업시 피켓팅의 금지 등을 포함한다. 블레어 정부는 노사관계의 현대화를 위해 부분적 법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70년대와 같은 강력한 노조의 파업에 이끌려 가는 노동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블레어의 노동시장정책은 일면 미국과 유럽의 동시적 영향을 받았다. 노동당 정부는 미국식 유연노동시장을 지지하면서도 '일하는 빈자(working poor)'를 위한

고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입법하고 유럽연합의 사회헌장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식 유연노동시장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active labour market)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실업보험의 정비와 실업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훈련 등을 위해서 장기적인 교육투자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결국 노동당은 노사관계의 현대화는 노동과 자본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 대신 타협과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노동당 회의의 청중은 블레어가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왼쪽이 블레어

반면에 블레어는 자유기업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기도 했다. 1997년 블레어는 대기업조직인 영국산업연맹(CBI)에서 연설하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공언했다.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은 중앙은행인 영국은행을 독립시켜 금융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동시에 기업과 중간계급에게 더 이상 조세인상이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결박하듯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전통적인 사회민주당이 추구하던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듯이 보인다. 오히려 오랫동안 보수당이 주장했듯이 생산과 투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공급중시의 경제정책으로 선회한 듯이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블레어의 선거전략가들은 노동당이 더 이상 노조가 주도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대중적 기반을 가진 국민적 정당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물론 블레어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노동당 좌파의 원들은 블레어가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리하여 탄광노조 출신의 유명한 노동당의원 아서 스카길은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자신이 이끄는 사회주의 노동당을 결성

하여 총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좌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스카길의 도전은 무참하게 실패했다. 스카길이 블레어를 '배신자'라고 크게 외칠수록 오히려 노동당은 중간계급이 그토록 싫어했던 강경좌파라는 낡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에 전국적 노동조합조직인 노동조합회의(TUC)는 강경한 정치투쟁보다는 조직원 확대와 노동자 권익보호, 조합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sup> 노동조합회의는 신조합주의(New Unionism)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직강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9년에서 1995년까지 영국의 노조 가입원 숫자는 1,700만명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 주된 노조 가입율의 감소는 주로 남성·육체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회의(TUC)는 노동시장이 점점 분절화되어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파트타임 노동자·여성노동자·사무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확대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4. 노동당 정책기구의 개혁

블레어는 노동당 정책결정과정의 근본적 변화를 위하여 노동당의 개혁을 시도

1) 최재희, 「영국노동조합의 미래」, 『노동사회』 1998년 2월호. 권현지, 「조직률 급감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사회』 1999년 1월호 참조.

했다.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수많은 사회주의적 의제를 전당대회에 제출하고 장시간 논쟁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도 없이 단지 사회주의적 교리에 따른 공약만 지속적으로 생산해냈다. 그러나 블레어의 지지자들은 아무리 심각한 정책논쟁이 전당대회에서 벌어진다 한들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인 공론만 벌인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노동당 정책결정과정의 개혁을 추진하는 블레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동당을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주변정치'(marginal politics)에서 '주류정치'(mainstream politics)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다. 블레어는 더 이상 노동당이 주변적 위치에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당이나 반대자를 중립화시키고 가능한 지지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노동당에 적대적인 타블로이드 신문인 데일리 메일(Daily Mail), 선(Sun)과 제휴를 시도했다. 특히 블레어는 영국의 타임(Time)과 선(Sun)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이 주최하는 '뉴스 코퍼레이션 리더십 대회'(News Corporation Leadership Conference)에서 연설을 하였고, 다른 노동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타블로이드 신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했다.

블레어는 노동당의 정책개혁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의 개입, 완전고용, 조세제도를 통한 복지국가 유지 등 사회민주주의적 합의가 붕괴된 1970년대 후반 이후 신우익의 민영화와 시장에 대한 강조에 직면하여 전 세계의 사회민주당들은 무력하게 되었다. 블레어는 이러한 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인정했다. 만약 노동당이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공공지출의 증대를 통한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이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부유층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고액의 세금을 공언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여론 조사에서는 사람들이 교육과 의료 프로그램을 위해 이타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나타나곤 했으나 투표장에서는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보수당을 지지하였다. 결국 블레어는 공공지출을 증가시키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을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고 절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3% 이내의 최소한의 경제성장 속에서 조세 인상이 없이 정부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당 모두가 오랫동안 지지하던 완전고용의 실현과 복지

국가의 유지를 통한 합의의 정치(consensus politics)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지구적 차원에서 통합되는 세계경제는 개별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자본의 국제이동은 실제로 금융시장이 지구상 어떤 국민국가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주권과 자유시장 사이의 긴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이데올로기적 물결은 우파로 이동하고 있었다. 블레어의 중심적인 경제논쟁은 시장 경쟁 사적소유 기업가가 되고 있다. 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의 지지뿐만 아니라 기업소유자 사업업자 소비자 학부모 시민 등 모두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블레어 정부는 계급을 토대로 한 정치(class-based politics)를 초월한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5.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블레어의 노동당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에 대해 전통적인 좌파들은 매우 회의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조차 하다. 좌파들은 블레어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더 나아가 인간의 얼굴을 한 대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해 보수당과 우파들은 블레어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복지국가의 명령을 되살리려고 하

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블레어는 자신은 대치주의나 사회주의의 계승자가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급진정치를 제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안토니 기든스는 다른 어떤 노동당의 이론가들 보다 훨씬 세련된 표현으로 블레어를 위한 새로운 정치프로그램을 정식화하였다. 기든스는 '제3의 정치' 먼저 정부의 재구성을 통해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면서도 역동적인 조직을 재편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시민사회를 재구성하여 정부·시장·시민 삼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복지국가는 수동적 위험체계에서 적극적 복지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통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국가들간 민주주의를 위한 '지구적 통치'를 위한 국제적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새로운 생태학적 근대화를 위한 전 인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경제통제와 협력을 신속하게 요청하고 있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제안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마치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제3의 길'이 향



후 20~30년간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기든스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아니라 단순한 개요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의 개요는 사회 내 각각의 주요부문에 관한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통합처럼 보인다. 기든스는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능동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보호주의는 반대하지만 전격적인 자유무역에도 비판적이다. 또한 금융의 지구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단기 투기자본의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든스는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활력있는 시민사회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이의 공생과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기든스의 정치프로그램은 시민사회의 미덕에 대한 일반적인 호소이지만 블레어의 노동당을 중심으로 유럽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

블레어가 제창하는 '제3의 길'은 1990년대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서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나라별로 연정파트너에 따라 복지감축, 소득세 감면, 민영화에 대한 정책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1998년 10월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

르면, 유럽 13개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복지의 감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4개국들만 소득세 감면을 지지한다. 그러나 스웨덴과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중도좌파 정당은 전무하다.

이태리의 공공산당을 서유럽의 사회민주당과 같은 스타일로 개조한 민주좌익당과 집권세력인 올리브연합도 블레어 스타일의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독일 시민당의 슈피더 수상 역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을 주장하며 '독일의 블레어'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다. 다만 프랑스 사회당의 조스팽 수상만이 녹색당, 공산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수립한 이후 정부의 공공투자증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증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의 좌파들은 때때로 블레어 노선에 대한 회의감이나 또는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구의 많은 중도좌파 정부들은 점차 블레어의 실용주의 노선에 접근해나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 6. 결론

블레어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이 노조의 절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복지 국가의 개혁을 요구하는 중간계급과 연

함하여 새로운 대중정당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더 이상 사회주의적 가치와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현대화'를 새로운 모토로 내세우는 블레어의 개혁내용은 상당부분 복지국가의 유산을 보전하고 있는가 하면 동시에 대처의 자유시장에 대한 강조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도 준다. 그러나 블레어의 개혁은 전통적인 복지국가로 돌아가거나 또는 대처리즘을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3의 길'이 과연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블레어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은 상당부분 1980년대 대처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개혁의 유산을 토대로 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의 중도노선은 노동당의 수정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1978~1979년 '불만의 겨울'을 거치면서 '현대화론자'로 재조적화되었다. 실제로 블레어는 자신의 저술한 pamphlet '제3의 길'에서 이를 '실용주의'라고 부르고 자신의 정치이념을 '영구 수정주의'(permanent revisionism)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블레어로 대표되는 '현대화론자들'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이론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수정하고, 보수당이 이룩한 경제 개혁을 토대로 영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블레어의 개혁은 가족의 변화, 기술발전, 지구화 등 현대사회의 근본적 사회변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직업, 국민국가 등의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구화는 국민국가가 케인즈적 경제관리전략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변동은 2차대전 이후 사회민주주의, 완전고용,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블레어의 개혁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근본적으로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블레어의 정치이념은 현재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혼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정치실험을 마치지 않은 단계이다. 블레어의 새로운 정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시장 경쟁 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유럽의 사회민주당이 강조하던 공동체 동정 연대와 같은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블레어는 복지국가와 자유시장의 대립을 해결하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서 실용주의적 중도노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제3의 길'은 유럽과 북미의 중도좌파 정당들에게 상당기간 중요한 정치적 쟁점을 제공할 것이다. ♦